

# 성장통 ①



#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아민 (인턴기자)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놀이터의 한 구석에서 큰 형과 누나들은 멋진 정장과 하이힐 차림을 한 채 입으로 풍선껌을 불고 있고, 다른 어린 아이들은 청바지와 평상복 차림을 한 채 옷 소매로 흘러내리는 콧물을 닦고 있네요.

우리는 언론에서 비춰주는 멋지게 차려 입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매료됩니다. 그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라성 같은 최고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듣고 순순히 따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진보주의적인 성에 대한 이해, 신학,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이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을 표합니다. “어떻게 언론인들은 이렇게 박식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보다 높은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는 종교인들은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러한 종교인들의 반응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언론인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슬람 테러리스트, 분열된 교회, 그리고 줄어드는 성도들로 인해 종교인들이 흩어지고 종교가 힘을 잃어갔고, 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통해 그들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힘썼습니다. 언론은 눈물을 짜내는 소수의 이야기들로 성소수자 이슈들을 인종과 인권에 연관 지어 다루었고 공개 토론에서는 아예 종교와 도덕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얼마 전까지는 사실 실패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들과 다른 기독교 기관들이 강제적으로 폐쇄되고 있고 강력한 엘리트들이 휘두르는 무지개 빛 깃발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격동의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언론이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자로 묘사하면서 세상은 트럼프를 외면했습니다. 적어도 TV

속 언론인들은 그랬습니다. 언론인들은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더욱 침착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오히려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길러낸 굉장한 전문가들만 봐도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태 자신의 국가에 의해 억압 받아왔던 청바지 차림의 시골출신 미국인들이 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해 그를 기적적인 승리에 이르게 하면서 세계의 판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자 에릭 메탁사스의 아동서적 “도널드가 늪의 물을 다 빼버렸어요”에서의 건방진 풍자처럼 이제는 백악관에 원시인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덩치 크고 소리치기 좋아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원시인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엘리트 계층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진정한 엘리트 계층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의 청바지 차림의 지지자들에게 좌파 언론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세계 각지의 종교 공동체들이 수천년간 해오던 주장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식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옳은 것이 될 수 없기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였고 언론은 곧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언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고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기 도취자 - 탄핵하라!”라고 외치며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진중권 교수, 금태섭 의원과 이언주 의원, 조영길 변호사 간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다룬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조성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도덕성에 관련된 공격들에 조영길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하자 곧 상대 토론자들은 법적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그의 기독교 정체성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약간 맛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냐라는 거죠.” 이 발언에 조영길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란 집단을 모욕한 것입니다”라고 반응하자 진중권 교수는 뻔뻔하게도 “그렇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토론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마무리 지었고 그들의 수준 이하의 전술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비종교인들까지 말입니다.

위 현상을 두고 최근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유태인 시사 및 정치 해설가 벤 샤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니 좌파가 정치적 토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요. 토론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좌파는 정책에 관한 토론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토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을 두고 토론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형편 없는 인간이라며 책망하고 싶다는 것이죠. 좌파를 좌파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들이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들은 주저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또 한 번 그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대신 유튜브 등의 다른 플랫폼으로 눈을 돌려 “진짜 뉴스”를 찾기 시작하면서 “엘리트 계층”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 나는 고급 구두가 아닌 평범한 상식이 진정한 엘리트라고 주장한 트럼프가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전 세대들은 곧 지나갈 것이고 이제는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모든 중요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총과 거짓으로 무장한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놀이터에 설치된 정글짐 뒤에서 숨어있을지 아니면 그들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